

엘리아 - 넘버원

처음과 마지막

Jeff Pippenger

2023-07-31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할 메시지와 함께 나타날 선지자 엘리아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말라기 4:5, 6.

성경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나 하나님께서 '땅을 치시는' '저주'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마지막 재앙'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계시록 15장은 16장의 크고 두려운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예언적 배경을 소개한다.

또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징조를 보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였다. 이는 그 재앙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보았는데, 불이 섞인 유리 같은 바다와도 같은 것이 있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그 유리 같은 바다 위에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의 일은 크고 기이하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드러났음이니이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순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띠고 있었다. 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찼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 15:1-8.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15장에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을 때 구원을 얻을 기회가 닫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찾으라고 주어진 유예 기간은 그때 끝난다. 그 시점에 이르면, 요한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라 부르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쏟아진다. 말라기는 그 날을 "두려운" 날이라 불렀고, 이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상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하신 것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신 것 같이 진노하시 그의 일을,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행사를, 곧 그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더욱 굳어질까 함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온 땅 위에 작정된 멸절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라. 이사야 28:21, 22.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가 '온 땅'을 아우르지만, 영감은 재앙이 쏟아지는 일이 한 나라의 반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모범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지만, 같은 위기가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증언, 제6권, 395쪽.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에 강제를 가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에 있어 교황권과 연합하게 될 때,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미국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이끌리게 될 것이다." 증언, 제6권, 18.

모든 나라는 각자의 유예 기간의 잔을 채우게 되겠지만, 화잇 자매가 '국가적 파멸'이라고 규정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녀가 미국에서의 일요일법으로 시작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의 때'라고도 부르는 그것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특별한 의미에서 무효화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통치자들은 입법 조치를 통해 일요일법을 강제 시행할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입법 의회에서 종교상의 특권에 관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속박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무효화될 것이고,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88년 12월 18일.

하나님의 심판, 곧 화이트 자매가 '국가적 파멸'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국가 일요일법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의 시작을 알린다. 다만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곱 마지막 재앙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흐름에 출애굽을 더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이 나타난다. 애굽의 재앙은 열 가지였지만 둘로 나뉘었고, 처음 세 재앙은 마지막 일곱 재앙과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미국의 국가적 파멸로 시작하여 미가엘이 일어서며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까지 이어지는, 처음 세 재앙으로 대표되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을 압제하고 멸하려 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악인들에 대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담대해지게 하지만, 그 형벌은 오래 지연되었기에 그만큼 확실하고 무섭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하신 것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하신 것 같이 진노하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곧 그의 이상한 일을 행하시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곧 그의 이상한 사역을 이루시리라.' Isaiah 28:21.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별하시는 행위는 낯선 일이다. '내가 살아 있거니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Ezekiel 33:11. 여호와와는 '공홀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 죄악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결단코 유죄한 자를 면죄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결코 악인을 무죄하다고 하지 아니하신다.' Exodus 34:6, 7; Nahum 1:3. 그분은 의로우신 두려운 일들로 짓밟힌 자신의 율법의 권위를 드러내어 세우실

것이다. 범법자를 기다리고 있는 보응의 엄중함은, 정의를 집행하시기를 주저하시는 주님의 태도에서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의의 분량을 채우기 전에는 치지 않으시는 그 민족도, 마침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의 중보를 그치실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경고된 섞임 없는 진노(요한계시록 14:9,10)가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되기 직전에 온 세상에 내리게 될 더 무섭고 광범위한 심판들과 성격이 유사하였다. 이 끔찍한 재앙들을 묘사하면서 계시자는 이렇게 말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더라.' 바다는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또한 '강들과 물 근원들이 ... 피가 되더라.' 이 징벌들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입증된다. 하나님의 천사는 선언한다. '주여,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 16:2-6.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함으로써, 마치 자기 손으로 그들의 피를 흘린 것과 다름없이 그 피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벨의 때로부터 흘려진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유죄라고 선언하셨다. 이는 그들이 동일한 영을 지니고 있었고,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재앙에서는 태양에게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열기에 타버렸다.' 8, 9절. 선지자들은 이 두려운 때에 땅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땅이 애통한다; ... 들의 수확이 망해 버렸기 때문이다.... 들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사람의 아들들에게서 기쁨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곡간들이 텅 비어 황폐해졌다.... 짐승들이 어찌 그리 신음하는가! 소 떼가 초장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강들이 말라버렸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켜 버렸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에 성전의 노래는 울부짖음이 될 것이다. 모든 곳에 시체가 많이 있으리니, 그들을 잠자코 내던질 것이다.' 요엘 1:10-12, 17-20; 아모스 8:3.

이 재앙들은 보편적이지 않다. 만약 보편적이었다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전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심판은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탄원하여 죄인이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온전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왔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피난처를 수많은 이들이 갈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때가 이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떡의 기근도 아니요 물에 대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왕래하되 찾지 못하리라.' 아모스 8:11, 12.

대쟁투, 627-629.

이전 문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 불의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차기 전까지는 치지 않으시는 그 나라는 마침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녀는 같은 문단에서 이렇게도 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할 때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되기 직전에 온 세상에 내릴 더 무섭고 광범위한 심판들과 성격이 비슷하였다." '불의의 분량'을 채우는 그 나라(미국)는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과 유사한 재앙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재앙은 두 시기로 나뉘었다. 처음 세 가지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닥쳤지만,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에게만 닥쳤다.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는 내가 땅 가운데 계신 여호와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8:22.

이집트의 처음 세 재앙은 온 땅에 내렸지만, 히브리인이 살던 고센은 이집트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받지 않았다. 미국은 일요일 법령 때 최악의 잔을 가득 채우는 나라이다. 그때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르지만,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 전체를 위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국가적 파멸을 가져오는 심판들은 자비와 섞여 있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지금 자신을 안식일 준수자라고 고백하는 대다수는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일요일 법령의 문제는 재림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적 시험이 된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는 열한시 일꾼들의 큰 추수의 때이지만,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이미 제칠일 안식일의 빛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이들에게는 문이 이미 닫혔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불과 홍수와 지진으로 그분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자신이 가까이 오심을 경고하고 계신다. 세계 역사에서 거대한 위기의 때가 도래하려 하고 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지대한 관심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주목될 것이다. 잇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불과 홍수와 지진, 그리고 전쟁과 유혈 사태로.

오,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고하심의 때를 알기만 한다면! 아직 이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절히 씨름하고 계신 이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파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애롭게 굽어보실 것이다. 그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되었고, 구원하시려는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다. 한편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서 드러난다. 그분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경고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 우리 백성이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땅히 느끼기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증언, 9권, 97쪽.

앞선 대목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의 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자비의 때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대목에서 그녀는 그 기간을 "환난의 때"라고 부른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도 그러하고 장차도 그러하여,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담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중대한 쟁점이라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만일 어떤 이가 믿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복을 받고서, 그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계명을 깨뜨린다면, 높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 확실하게,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거룩한 성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는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온전히 선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은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신자들을 격분하게 했는데, 그들은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모두가 우리가 진리를 가졌음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그 박해를 견뎠다." 작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 18, 19.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방금 인용한 같은 구절이 "Early Writings"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책에서 그녀는 "환난의 때"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주석을 덧붙였다. "A Word to the Little Flock"은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 실망했지만 신실했던 밀러파 신자들이 낸 첫 간행물이었으며, 수십 년 뒤 편집자들이 그 소책자의 일부를 발췌해 "Early Writings"에 수록할 때, 그들이 말한 "환난의 때"는 "일곱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에는 심판에 자비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1. 33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과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장벽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또 안식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큰 쟁점이라는 것도 보았다.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가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히 선포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 견해는 1847년에 주어졌는데, 그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형제들이 극히 적었고, 그들 중에서도 그 준수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 사이에 경계를 그을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이제 그 견해의 성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그 환난의 때의 시작'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앙들이 쏟아지기 직전의 짧은 기간, 곧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계시는 동안을 가리킨다. 그때, 구원의 사업이 마감되어 가는 동안, 땅에는 환난이 임하고 열국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억제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곧 주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 임하여, 셋째 천사의 큰 소리에 능력을 더해 주고, 일곱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기간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예비할 것이다. Early Writings, 85.

미국에서 일요일 준수령이 제정될 때, 국가적 배교 다음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그 일요일 준수령 때 미국의 재림운동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며,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국가적 파멸은 애굽의 처음 세 재앙으로 표상된다. 그 심판들은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한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며, 그 후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진다.

내 요지는 이집트의 예언적 역사 자체보다, 엘렌 화잇이 이집트를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나라의 상징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의 예언적 표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주께서 고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새로운 이름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가 그들을 놓아 보낼 것이요, 강한 손으로 인하여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나는 그들과 내 언약을 맺어, 그들이 나그네로 지내던 땅, 곧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또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살이시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끌어 내고, 그들의 종살이에서 건져 내며, 펴신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끌어 내는 이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의 고통과 가혹한 종살이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출애굽기 6:1-9.

여기서 주님은 모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언약의 대표자로 지정하고 계신다. 모세 시대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드러내셨으니, 이름은 예언적으로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주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예언의 시작에서 언약의 인간 대표자는 자기 이름이 바뀌었고, 그 예언의 끝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드러내셨다.

15장에서 아브람은 언약을 맺었고, 그곳에서 사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었다. 17장에서는 아브람에게 할례의 예식이 주어졌고, 그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었다.

사백 년 후, 모세는 아브라함의 사백 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는 모두 마지막 때 주님과 언약을 맺는 십사만 사천 명을 대표한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갱신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4년 2월 26일.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안식일 준수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안식일 준수자들 사이의 분리는 일요일 법령 때에 이루어진다. 이 분리는 열 처녀의 비유로 상징된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또한 재림교인들의 경험을 보여 준다." 대쟁투, 393쪽.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지혜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과거에도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현재의 진리로서 계속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그 비유는 1844년 10월 22일, 밀러파 역사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분리되었을 때 성취되었다. 재림운동의 시작은 재림운동의 끝을 예표하며, 마지막 때의 분리는 열 처녀의 비유의 성취이며 그 분리는 일요일 법령에 의해 일어난다.

"또한, 이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유예 기간이 없을 것임을 가르친다. 복음의 사역이 완결되면 곧바로 선과 악이 분리되고,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123.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주의자들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미련한 처녀들이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밝힌다. 미련한 처녀들은 라오디게아인들로도 표상된다.

"어리석은 처녀들에 의해 대표되는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도 일컬어진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말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 모세 시대에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새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의 상태는 기름이 없다는 것이고, 라오디게아인들의 상태는 자신들에게 기름이 없다는 사실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눈멀어 있다는 것이다. 미련한 처녀들이 라오디게아인이라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빌라델비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시고 참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시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한다. 이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그들로 하여금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7-13.

빌라델비아인들은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께서 십사만 사천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자신의 새 이름을 알리실 것이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이 아흔아홉 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7:1-5.

주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택하신 백성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모세 시대에 그분이 그 언약 관계를 더 진전시키셨을 때에는, 처음으로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하시려고 오셨을 때, 그분은 구약에서 단 한 번, 그것도 바벨론인이 한 차례 언급했을 뿐인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드러내셨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한 세 사람을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또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매이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을 보노니 그들에게 아무 상함도 없고, 그 네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 3:24, 25.

다니엘서 3장이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쉽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4만 4천을 대표한다. 14만 4천은 마지막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다.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는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 예증을 본다. 그리스도는 14만 4천뿐만 아니라 세 천사의 기별도 대표하는 그의 세 용사들과 함께 박해의 불길 속에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일요일 법령의 위기를 표상하는 그 불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로 드러나시며, 그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름이다. 3장의 예증에서 우리는 세상의 끝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마지막 위기 동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보며, 그분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름을 가지신다.

미국의 일요일 법을 표상하는 이집트에서의 해방에 대한 우리의 고찰에서 너무 멀어지기 전에,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 중 첫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본격적인 안식일 문제에 관한 논쟁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바로가 이르되, 보라, 이제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을 그들의 노역에서 쉬게 하는도다. 그날에 바로가 백성의 노역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백성에게 짚을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전과 같이 만들던 벽돌의 할당량을 그대로 그들에게 지우라. 아무것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워 그 일에 힘써 일하게 하고, 헛된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백성의 노역 감독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찾을 수 있는 데서 짚을 구하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백성이 온 이집트 땅에 흠어져 짚 대신 짚부스러기를 거두었더라. 노역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일, 일일 할당량을 채우라 하니라. 바로의 노역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운 관리들이 매를 맞고, 문기를, 너희가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이 벽돌 만드는 일을 어찌하여 채우지 못하였느냐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부르짖어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는 짚을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벽돌을 만들라' 하시니,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나이다. 그러나 허물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참으로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말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않겠지만, 너희는 벽돌의 할당량을 그대로 내야 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날마다의 벽돌 할당량에서 아무것도 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알았더라. 출애굽기 5:5-19.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기 전에, 애굽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을 향한 반대와 선동이 점점 격화될 것이다. 애굽인과 히브리인 모두가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모세를 지목했는데, 이는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과 같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니, 이는 너희가 주의 계명을 버리고 네가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17, 18.

모세의 이야기는 일요일 법령의 역사를 보여 주고, 엘리야의 이야기도 일요일 법령의 역사를 보여 준다. 함께 있든 따로 있든, 모세와 엘리야는 상징들이다.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에서 그들은 함께 죽음을 보지 않는 십사만 사천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대표했다. 모세는 부활했고,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두 선지자이기도 하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상징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다루려 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말라기 4:5, 6.

인류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세상의 종말을 증언하며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4:32, 33.

엘리야의 메시지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전해진다. 따라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표현된 그 특별한 메시지와 동일하다. "때가 가까울 때" 엘리야의 특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시어, 그의 천사를 보내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리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1-3.

주목할 점은 말라기가 엘리야를 상징으로 사용할 때 계명 준수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종 모세에게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말라기 4:4-6.

이 세 구절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구절들로서, 구약의 마지막 약속과 더불어 십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어 성문들을 통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 요한계시록 22:13, 14.

구약의 마지막 약속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기억하라'고 알려 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하라'는 명령이 포함된 그 한 계명을 강조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가축도, 네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8-11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일곱째 날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한다. 말라기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요한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창조 능력을 기념한다. 안식일은 또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논쟁의 초점이 된다. 요한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기록할 때,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마지막 약속은 일곱째 날 안식일과, 시작을 통해 끝을 식별하게 하는 신성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시작'을 뜻하는 창세기에 언급된 첫 번째 진리는 창조주와 창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드러낸다. 이를 차근차근 종합해 보면, 구약의 시작과 구약과 신약의 결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십계명, 안식일 계명,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과 끝이심을 강조한다.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의 마지막 약속에서 말라기에 의해 상징으로 사용되며, 그는 이세벨과 아합에 맞섰던 선지자였다. 요한계시록은 이세벨을 교황권의 상징으로, 열 왕을 유엔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맞섰던 일은, 미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교황권의 지휘를 받는 유엔과 14만 4천 명의 대결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의 왕으로서 아합은 열 지파 위에 군림하는 통치 권력을 대표했는데, 이는 교황권(이세벨)을 위해 안식일 준수자들을 박해하도록 유엔(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지파 또는 열 왕)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아합)을 예표한다. 말라기가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는 기별을 대표하도록 사용할 때, 엘리야는 그가 이세벨에게 삼 년 반 동안 박해받았던 것처럼 현대 로마(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박해받는 자들을 대표한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말라기가 예시한 예언적 장면에 일요일 법령 위기를 더한다.

구약의 처음과 끝을 비교하고, 나아가 성경의 처음과 끝을 비교함으로써 드러나는 진리들을 고찰하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덧붙여야 한다. 창세기에는 창조주와 창조, 그리고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 있다. 말라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의 종결과 마지막 일곱 재앙(말라기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으로 이어지는 위기의 쟁점으로 지목된다. 엘리야는 죽어가는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은 엘리야와 세레 요한의 정신과 권능으로,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어 가는 마지막 때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과 관련하여 머지않아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심판을 앞둔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선지자와 왕들, 715, 716.

성경의 시작, 곧 구약의 시작은 구약과 신약의 결말과 같은 이야기를 가리키지만, 각 시작과 결말은 강조하는 진리가 달라 메시지에 각기 기여한다. 창세기에서는 초점이 하나님의 활동에 맞춰져 있고, 말라기에서는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에 맞춰져 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알파와 오메가를 밝힌다. 신약의 첫 책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기록.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즈음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모두 열네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열네 대이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뒤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열네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해 있었는데, 그들이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로 마리아를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이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여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아내가 첫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마태복음 1:1-25.

신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신약의 끝과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 옛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능력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다. 본문이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하여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백성 안에 거하시며, 이것이 바로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하실 때 이루신 그 결합이었다.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부합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의 요구를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으셨다. 사람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분은 아무것도 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품성의 이상을 제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 이상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인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이길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분의 생애는 신성과 연합된 인성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 치유의 사역, 180.

신약의 시작은 예수께서 어디서, 언제, 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는지를 밝힌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의 능력이 신적 능력과 결합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말라기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요한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곧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 준다. 마태는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밝힌다. 그리스도(영광의 소망)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의 능력을 우리 안에 지니게 된다. 이 가능성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가족에 들어오시기를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마련되었다.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밝혀진 특별한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 그 특별한 메시지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직전에 선포되는, 말라기의 '엘리야 메시지'이기도 하다.

구약과 신약의 서두와 신약의 결말에서는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이 드러나 있다. 창세기에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요한계시록의 끝에서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신약의 시작에서는 그분이 인자가 되신다. 그리고 구약의 끝에서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그 반대로 돌이키게 한다고 그가 선포할 메시지를 성취하는 데 사자 엘리야가 사용하는 원칙을 발견한다.

엘리야가 자신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데 적용하는 예언적 원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도록 명령받은 바로 그것과 같다. 엘리야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하였고, 요한은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장차 될 일들도 기록하게 되었다. 요한은 예언의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엘리야도 같은 원리에 자신의 메시지를 근거할 것이다.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끝을 비교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의 시작이고, 자녀는 아버지의 끝이다. 십사만 사천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마지막 세대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십사만 사천과 새롭게 하시는 때의 역사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은혜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 약속이 모든 자손에게 확실하도록 하려 함이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 로마서 4:16.

엘리야의 메시지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를 나타내는데, 아버지들이 알파요 자녀들이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고, 엘렌 화잇은 윌리엄 밀러를 엘리야이자 세례 요한으로 보았다. 이 대표적 인물들 모두의 메시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반대로 돌리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리는 메시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그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예언에서 상징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문맥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세레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유대 민족의 교사들이 제시한 온갖 전통에는 마음을 닫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는 마음을 열었다. 그의 출생 전에 성령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인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이켜,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15-17." 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주는 권면, 445쪽.

그 메시지는 듣기를 선택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로 마련되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주요한 예언적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시라는 사실일 것이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시하는 데 기초하며, 성경을 관장하는 규칙들 역시 그분의 성품의 속성이라는 이해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하다. 그것은 그의 뜻의 계시요, 그의 품성의 정확한 기록이며,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창조 세계의 조화는 모든 존재, 곧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창조주의 법칙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존재들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작용을 다스리기 위한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모든 것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정해진 법칙 아래에 있다. 그러나 자연계의 모든 것이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동안, 땅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도덕법의 적용을 받는다. 창조의 절정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의 율법의 공의와 선하심을 깨닫고, 그 법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거룩한 요구를 인식할 능력을 주셨으며, 인간에게는 변함없는 순종이 요구된다." 족장들과 선지자들, 53쪽.

모든 것(여기에는 성경도 포함되는데, 성경도 하나의 '것'이므로 '것'이라면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은 불변의 법칙의 지배 아래에 있다. 성경에는 올바른 해석을 좌우하는 불변의 법칙, 곧 규칙들이 있다. 그 규칙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자 그분의 성품의 한 속성이다.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이 도입부를 사용하여 구약과 신약의 시작과 끝이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성경의 결말, 곧 요한계시록의 끝도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일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속성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항상 보여 준다'는 원리에 근거한 동일한 진리를 증언하는 다섯 가지 증거이다.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말의 의미 중 일부이다.

밭모 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교회의 경험 속에서 깊고도 전율케 하는 장면들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을 분별하여 알도록 하시기 위해, 그에게는 대단히 흥미롭고 지극히 중대한 주제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제시되었다.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세계의 역사가 요한에게 계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형편과 위험, 투쟁, 그리고 최후의 구원을 매우 분명하게 보았다. 그는 땅의 추수를 익게 할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이들은 하늘의 곡간에 들일 곡단이 되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날의 불을 위한 땔나무 묶음이 된다.

요한은 환상 중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시련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강요하려는 억압적인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있어 그들의 굽히지 않는 확고함을 보았고, 그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도 보았다.

큰 붉은 용,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특히 짓밟고 그의 백성을 박해하는 데 앞장설 세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이 전쟁은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 거룩한 여자와 그 자녀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소수로 묘사되었다. 마지막 날들에는 오직 남은 자만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들에 관해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먼저 이교를 통해, 이어 교황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땅에서 말살하려는 노력으로 수세기 동안 그의 권세를 행사했다. 이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은 같은 용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는 교황권은 더 위험하고 잔혹한 원수였다. 사탄은 로마 가톨릭주의를 도구로 삼아 세상을 포로로 잡았다. 자칭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미혹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갔고, 천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용의 진노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교황권이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그와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와 율법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인 이 권세는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그 이전의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으나,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는 상징된 그 나라가 평화롭게 일어남을 나타낸다. "어린 양 같은 두 뿔"은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가지 근본 원칙으로 표현된 미합중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이 원칙들은 우리 국가의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처음 아메리카의 해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이들은 교황주의의 오만한 주장과 군주 통치의 폭정에서 자유로운 나라에 도달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라는 넓은 기초 위에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예언의 준엄한 필치는 이 평화로운 장면의 변화를 드러낸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 용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예언은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또한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이리하여 개신교는 교황권의 발자취를 따른다.

바로 이때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며 이렇게 선포하는 셋째 천사가 보인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는 자는, 섞임 없이 그의 분노의 잔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세상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결코 굽히지 않는 작은 무리가 서 있다. 이들은 이사야가 말한 바, 하나님의 율법에 생긴 틈을 수리하고,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세우며, 여러 세대의 기초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경고와 가장 무시무시한 위협은 셋째 천사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 자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는 지극히 흉악한 성격의 것임이 분명하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 세상이 어둠 속에 남겨져 있어야 하는가? —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진노는 알지 못해서 지은 죄들에 결코 임하지 않는다. 그분의 심판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죄에 관한 빛이 세상에 제시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심판들이 집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고를 담고 있는 기별은 인자가 계시되기 전에 선포될 마지막 기별이다. 그분 자신이 주신 표징들이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거의 사십 년 동안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져 왔다. 그 큰 투쟁의 결과 두 진영이 형성된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물어야 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 곧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이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과 분명히 구별해 주는 십계명의 유일한 조항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모든 이방 신들 위에 계시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제4계명이 명한 안식일은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늘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식일이 항상 지켜졌더라면, 우상숭배자도 무신론자도 불신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자연계의 만물은 그분을 기억하게 했을 것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증언했을 것이다. 제4계명의 안식일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가리키며,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 위에 그분의 정당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참된 것 대신 받아들인 거짓된 안식일이 아니라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교황권이 자신을 높일 것이라는 예언적 선언은, 안식일을 주간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는 일에서 놀랍도록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안식일보다 교황권의 안식일이 더 존중되어 우선시되는

곳마다, 거기에서 죄의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보다 높임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바꾸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안식일의 변경이 자기 교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바로 이 변화를 이 교회의 최고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그들은 한 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개신교인들이 신적 사안들에 대해 입법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의 무오성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개신교 교회들이 그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일 때 사실상 그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들은 이 변화를 변호하기 위해 사도들과 교부들의 권위를 인용할지 모르나, 그들의 논리의 오류는 쉽게 드러난다. 교황주의자는 개신교인들이 이 사안의 사실들에 기꺼이 눈을 감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예리하다. 일요일 제도가 점점 지지를 얻을수록 그는 결국 그것이 전 개신교 세계를 로마의 기치 아래로 끌어들이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뻐한다." Signs of the Times, 1899년 11월 1일.